

지역 소식통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16일 개장

김제시는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는 16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놀이장 개장은 16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41일간 운영하며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 매주 월요일은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위해 휴장하고 우천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물놀이장은 875㎡ 규모에 수심 30cm로 동시 수용인원은 매회 70명이며 벽전분수, 수조합물놀이대 1조, 놀이기구 7종과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가족쉼터 등 그늘막을 설치해 물놀이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물놀이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5세 이하 유아는 보호자를 1인 동반해야 하며, 저학년(1~3년)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요금은 무료다.

물놀이 시간은 1시간 50분에 휴식10분 방식으로 1일 4회 운영하며, 어린이물놀이장 이용자는 김제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김제시민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5회 김제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김제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1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5회 김제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기념행사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서백현 김제 시의회 의장, 도의원, 시의원, 인구정책위원을 비롯한 시민과 공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 검산초등학교 라온소리 합창단과 김제시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인구의 날을 기념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시민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최선”

유희대 완주군수, 피해 현장 순회하며 현장 대응 진두지휘... 신속 복구 진행

유희대 완주군수가 9일 저녁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완주군은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했고, 10일 새벽 2시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2단계를 발령하며 57명의 비상근무자들이 긴급 응급 문성철 부군수 주재로 상황판단 회의를 진행하며 피해 상황 파악 및 대응에 나섰다.

산사태경보가 발령되고 피해상황이 발생하자 새벽 4시를 기해 비상 3단계를 발령하며 실과소장들과 관련 팀장들을 전원 소집했고, 5시에는 읍면 전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했다.

호우 피해를 보고받은 유희대 완주군수는 피해현장을 돌아보며 상황을 점검했고, 오전 6시 군청에 복귀해 대처상황보고회에서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유 군수는 특히 현장중심의 빠른 대응과 함께 피해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날이 밝으며 호우가 잦아들며 따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유희대 완주군수가 9일 저녁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신속히 복구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 군수는 “주민들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 여름 많은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은 재난 문자에 관심을 기울여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에는 이날 하루 화산면 181mm, 대둔산 182.5mm 경천면 181mm 등 물폭탄이 쏟아졌으며, 오전 8시를 기준으로 38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수해 피해지역 찾아 현황 점검

운주면 수해현장·용진읍 요양병원 찾아... 애로사항 청취·대책마련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10일 최근 내린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서남용 의원, 박정수 운주면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주면 곳곳의 도로 유실과 주택 침수, 산사태 현장을 돌아보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의장은 수해 피해 현장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 “같은 장소에 피해가 또 발생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수해복구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장은 수해로 피해를 본 용진읍 실로암요양병원을 방문해 병원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유 의장은 “피해 우려 지역의 경우 사전점검, 상시 침수 지역 정밀조사 등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완주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10일 최근 내린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원하여 피해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완주군지역의 강우량을 집계한 결과 대둔산이 316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인근 운주면(271mm), 경천면(268mm), 비봉면(210mm), 고산면(199mm), 화산면(177mm)이 높은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외 봉동읍 158mm, 소양면 152mm, 동상면 151mm, 삼례읍 146mm, 구이면 142mm, 상관면 141mm, 용진읍 122mm, 이서면 114mm로 집계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호우피해 최소화 총력

재대본 가동·비상단계 근무 등 선제 대응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난 9일과 10일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10일 시에 따르면 김제지역에 지난 9일부터 10일(05시 현재)까지 최대 135.5mm의 비가 내렸다. 가장 비가 많이 온 곳은 봉남면으로 지난 9일 113.5mm, 10일 22mm의 비가 내려 135.5mm를 기록했다. 가장 적게 온 곳은 광활면으로 지난 9일 55mm, 10일 16mm로 누적 71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김제지역에는 평균 108.4mm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시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10일 0시 강풍주의보, 0시 30분 풍랑주의보, 2시 30분 호우경보, 3시 46분 산사태 경보를 발효했으며 새벽 5시 호우경보를 해제했다.

시는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통제를 가동해 금산면 원평천 둔치주차장, 하상도로 8개소(만경강 2, 두월천 5, 신령천1), 모악산탐방로 6개소를 전명 통제 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총 81명이 근무를 실시했다.

피해는 나무도복 1건(금구면), 하우스 침수(만경읍 소토리) 1건으로 긴급 복구작업을 완료 했다.

시는 또 산사태 취약지역 10개소, 우수저류시설 2개소, 급경사지 60개소 점검 및 탐방로 26개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 발견 시 선제적 주민대피와 피해 발생 시 상황과 약 및 응급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선제적 대응 실시로 재난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지정 근무를 통한 재난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전주 통합하고 왜곡역사 바로잡자’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읍·면 조직구성 출정식

완주·전주 통합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10일 읍·면 조직구성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정식은 일제에 의해 나뉘진 완주·전주를 통합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출정식에는 마완식, 내유인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출정사, 격려사, 성명서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마완식 공동대표는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불법적인 반통합행위를 중단하고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말했으며, 내유인 공동대표는 “완주·전주 통합은 일제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다.”고 말했다.

성명서의 주된 내용은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관련단체를 이용한 불법적인 반통합행위 중단 등이다.

이번 출정식은 시민단체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완주·전주 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아파트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공모

완주군이 2024년 하반기 아파트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할 아파트 공동체를 모집한다.

모집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공모분야는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아파트형 △자율적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 문제 해결, 주민 지역축제,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율형 총 2개

유형이다.

접수는 완주군청 6층 지역협력과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 공동체는 8월부터 아파트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지역협력과(☎063-290-3232)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